

KUKJE GALLERY

PRESS RELEASE

우순옥 개인전 <무위예찬>

Press Conference 2016 년 5 월 13 일 (금) 오전 11 시

Exhibition Date 2016 년 5 월 13 일 - 2016 년 6 월 12 일

Exhibition Venue 국제갤러리 1 관 (K1)



*'무위(無爲)'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이룬다'라는 역설적 의미로,
나에게 있어 궁극적 가치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과 예술의 실천적 존재방식이며 윤리적 태도이다.*

- 우순옥 작가 노트

국제갤러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작가인 우순옥의 개인전 《무위예찬》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작가의 네 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으로 영상, 사운드, 드로잉, 설치작품 등 총 12점을 K1에서 선보인다. 우순옥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예술적 사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철학적인 개념들을 다양한 형식적, 방법론적 실험과 시적 변주를 통해 가시화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업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인 '무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라진 장소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를 둘러싼 대상들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 인지를 묻는다. 노자의 '무위(無爲)'사상을 다시 읽고 해석하는 작가의 시도로부터 출발한 《무위예찬》전은 과도한 경쟁과 결과 중심주의가 일상을 압도하는 이 시대의 개인들에게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삶을 바라 보고 관찰하는 예술가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과거에 제작한 작품들을 20여 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1985년 대학시절 제작한 유화작품 <침묵의 바다>(1983)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다룬 작품으로, 캔버스의 프레임에서 해체되어 돌돌 말려진 채로 서울과 독일을 오가던 중 작가가 1995년 독일을 떠나면서 그곳의 작업실에 남겨졌다. 그리고 2016년 어느 날, 마치 서랍 속의 오랜 귀중품처럼 잘 보관되어 있던 옛 작품들을 다시 꺼내보다가 그곳에서 시간의 굴곡이 새겨진 그림들을 마주하게 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 <시간의 그림>(1983/2016)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여 이번 개인전에 선보인다. 우순옥에게 시간이란 기억이자 존재의 그림자로, 오래된 과거의 그림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영혼의 땃줄처럼 아득한 인연의 길을 이어가는 매체이자 동시에 작가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다.



시간의 그림, 1983/2016, 캔버스 위에 유화, 실, 주름진 시간의 흔적, 142x121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1관 전시장 내에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설치된 독일 쾰른 근처에 위치한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 (Bruder-Klaus-Kapelle)로 이르는 길의 모습을 담은 작품 <무위의 풍경>(2014)를 마주하게 된다. 이 작품은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형태를 띠는 느린 기다림의 감각, 침묵과 비움으로 자유로움을 얻는 '무위'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보여준다. 소박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건축가 페터 줌토르(Peter Zumthor)가 완성한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명상의 장소는 침묵과 비움을 통해 정신을 해방시키고 무한한 깊이를 부여한다. 작가는 이 경당으로 이르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서 촬영한 영상을 10시간여의 긴 시간으로 늘려서 상영하여, 인생의 긴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엠티 스페이스 (Empty Space)' 이다. 드로잉, 무의미한 소리 또는 언어, 그리고 명상적인 설치와 사진, 영상 작품들에 내재되어있는 '비어있음'은

부정(否定)적 개념이 아닌 근원적 감각에 대한 탐구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낸다. 이런 맥락에서 1관 입구 쪽 전시장 가벽에 설치된 영상작품 <파라드로잉>(2014/2016)은 비움의 프로젝트다. 작가에게 이 작품은 “예술적 의미의 무의미화, 혹은 무의미의 의미화의 즐거운 실천이며 느림의 여행”과 같다. 작가는 2008년 폐쇄된 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된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¹의 모습을 멀리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영상으로 담았다. 주거단지와 문화 시설을 세우겠다는 베를린 시의 계획에 반대하여 시민 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조성된 베를린 템펠호프 공원(Tempelhofer Park)은 자본과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시민의 승리로 드넓은 자유(Freiheit)가 된 상징을 보여준다. 이 영상에서 보이는 텅 비어있는 넓은 공간에 하나 둘씩 오가는 자유로운 모습의 사람들은 비어있는 공간이 실은 그들의 삶으로 채워져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파라드로잉, 2014/2016, 영상, 5분 5초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우순옥은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직후 파리 19구에 위치한 뷔트 쇼몽(Buttes Chaumont) 공원을 방문했다. 당시 작가는 공원 내 바닥에 금색 가루로 “Form is emptiness, Emptiness is form”,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글귀를 적어 내려갔다. 위험하지만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불온한 그 공간에 작가는 값비싼 물질이지만 부질없는 욕망의 상징이기도 한 금(가루)으로 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 차용한 허허로운 텍스트를 슬쩍 개입시킨다. 금방 바람과 비에 쓸려 먼지처럼 사라질 금색 가루로 적혀진 이 문구들은 일시적이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다. 파리 뷔트 쇼몽 공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텍스트는 <무위의 정원>(2015/2016)으로 전시장 창문에 나타난다. 이는 세계의 역설에 개입하는 작가 고유의 시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¹ 템펠호프 공항은 1923년 개항을 시작했으며 2008년 폐쇄되기 전까지 서베를린의 주요한 군사거점이자 민항으로 사용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일런스, 플리즈, 2014, 영상, 4분 34초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엠티 스페이스 -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다, 2007, 퍼포먼스 영상, 45분 14초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순옥 작가, 2011,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우순옥은 1958년 인천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후, 1985년 독일로 유학하여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Düsseldorf Kunstakademie)에서 귄터 위커(Günther Uecker) 교수의 지도하에 수학했다. 7여년간 독일에 머물면서 작가의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예술관을 구축하였고, 이 시기는 작가만의 창작적 사유의 바탕이 되었다. 1995년 한국에 돌아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우순옥 작품의 주요 주제는 '시간'이다. 작가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어 새로운 의미의 층위를 덧씌우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개인전에 선보이는 2007년 성북동의 낡은 건물 창문에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글자를 붙여나간 퍼포먼스 영상작품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다>(2007)는 삶의 파노라마가 느껴지는 하나의 예술적 풍경으로 다가온다. 또 다른 예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자리의 구(舊)기무사 내의 버려진 온실에 꽃을 심고 가꾸며 부활시킨 작업 <온실 greenhouse>(2009)은 잊혀진 시간과 기억 속에서 잠재된 가능성과 이를 통한 시간의 회복성에 대한 미학적 면모를 반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일련의 소박한 행위를 통한 기록은 시간성에 대한 작가의 근본적인 탐구를 추상적으로 가시화하는 관념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 2011년 국제갤러리 《잠시 동안의 드로잉》, 2009년 아뜰리에 705 《달과 그의 친구들》, 2009년 일본 아이치 현립 예술대학 《아주 작은 집 - 아이치》, 2002년 대림미술관 《장소 속의 장소》, 2000년 아트선재센터와 삼청동에서 열린 《한옥 프로젝트 - 어떤 은유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작가는 2011년 덕수궁미술관 《추상하라!》, 2009년 에스파스 꼬뮈네스 파리 《Vide & Plénitude》, 2006년 제 15회 시드니 비엔날레, 2003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사계의 노래 - 한국현대미술전》,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과 오사카 국제미술관에서 열린 《또 다른 이야기 - 한일현대미술전》 등 국제적인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Contact: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고화질 이미지 및 한글파일은 아래 웹하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ID: kukjegallery PW: kukje

경로: webhard.co.kr > 2016 우순옥 개인전 무위예찬